

교회소식

우리 아름다운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여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안내]

이번 주 새벽예배는 월-금 6:00에 줌으로 드리며
중보기도모임은 화요일 8:30 PM에 있습니다.
금요일예배는 8시 20분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2. 11월 19일 제직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는 <예배, 선교 그리고 훈련>이며
장소는 목양관에서 하며 식사 후 6시에 시작합니다.

3. 2023 크리스마스 전야예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담임목사님 또는 목장의 목자에게 알려주세요.

교우소식

김주은(한국), 박성미(한국), 이왕우(한국)
김은혁, 김현욱 (한국)

봉사 위원

	오늘 10.29	다음 주 11.5
안내	윤준구 안수집사	윤준구 안수집사
봉헌	유오림 집사	정세미 집사
청소	전교인	전교인
간식	선우선 집사	이지숙

지난 주 헌금

주일헌금 | 윤영민, 백지우, 정용욱, 이은미, 백선아, 윤영준
김진하, 최자량

추수감사헌금 | 백세린, 윤준구, 김선영, 김은혁, 김현욱, 조용주
변기욱, 김세예, 백장현, 이지숙, 정용욱, 이은미
박창식, 선우선, 김은익, 유오림, 유정임, 유현정

십일조 | 정세미, 배동진, 김은혁, 김현욱

Cheque payable to Beautiful Church London
교회계좌 Barclays Bank 43616959, <205776>

아름다운교회는

아름다운교회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유럽노회 소속 교회로서 누구라도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찬양과 역동적인 말씀,
그리고 열병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진 젊은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섬김 공동체 -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
선교 공동체 - 가서 제자를 삼는다.
제자 공동체 - 배우고 지키고 가르친다.
사역 공동체 - 종의 자세로 사명을 실천한다.

오시는 길

주소 | St. JOHN'S CHURCH, SPENCER HILL
WIMBLEDON SW19 4NZ
* 구글맵에서 주소 입력 후 검색
버스 | 교회 근처 역에서 내려 도보 3~7분 거리
기차 | 웬블던 역(Wimbledon station)에서 하차
도보 10분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백장현 07748 500 038
원로목사 김은혁 07771 544 871
3 Maria Theresa Close, New Malden KT3 5EF
✉ bkclondon@gmail.com

예배/행정 변기욱 간사

피아노 & 오르간 | 김선영 집사
키보드 | 이지숙 사모
드럼 & 베이스 | 김진하 집사, 윤영준
기타 | 정용욱 안수집사 바이올린 | 최자량 집사
싱어 | 김주은 집사, 정예은 PPT | 백선아
예배동시통역 | 김진하 집사

해외한인장로회



Since 1998.12.20.

Charity Registration No. 1171759

St. JOHN'S CHURCH
SPENCER HILL
WIMBLEDON SW19 4NZ
www.bkclondon.com
www.facebook.com/beautiful
churchlondon

2023 표어

믿음대로 사용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11:1)

Our Vision

우리는 복음으로
삶과 세계를 변혁하는 공동체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예배 14:00 교회분당
어린이부 13:50 별관
금요집회 20:30 교회분당
새벽예배 월~금 ZOOM
6:00
중보기도 화요일 ZOOM
20:30

2023 Oct 29

제24권 44호<1289>

주일예배 2:00

주일예배

Lord's Day Service Order

인도 | 백장현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한 4:24)

찬양 Praise the Lord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 드림의 찬송 Hymn

주가 통치하시고, 불을 내려 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임재

대표기도 Prayer

유현정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룻기 2:1-13

설교 Sermon

'우연'과 '마침'이 만나면
백장현 목사

- 봉헌 및 결단의 찬송 Offering & Hymn
주님과 함께 하는 (원제: 온 맘 다해)
-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광고 Announcement

■ 일어서서<Congregation Stand Please>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은 꺼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대표기도 | 변기욱 간사

아름다운 (31b 토브)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토브'는 사람이나 물건 혹은 장소가 지니고 있는
최고 혹은 최선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선교, 훈련, 사역이
하나님께서서 "보시기에 좋은(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고백이 담긴 교회의 이름입니다.

묵상나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주는 경고”

11월 1일과 2일 새벽예배 말씀으로 <오바다>를 봅니다. 오바다는 21절로 구성된 아주 작은 예언서입니다. 짧은 내용이 담긴 이 예언서는 야곱의 형제 나라 에돔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언자 오바다의 이름은 ‘여호와와 종’, ‘여호와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바다’란 이름을 가진 인물이 12명이지만 이들이 제사장이나 예언자로 사역한 경우는 없기에 그가 어떤 시대의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오바다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와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돔은 붉은색을 띠는 산과 바위가 많은 곳으로 사막에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 사해에서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산악지대를 영토로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 페트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에서의 피부가 붉듯이, 그들이 사는 땅이 적색이라 에돔이라 불렸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이면서도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숙임수에 속아 자신의 장자권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마저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그래도 훗날 야곱의 회개로 인하여 에서와 화해하여 평화의 시간을 보냈지만 후손은 적대적 관계로 지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지나가게 해 줄 것을 에돔에 요청하였으나 끝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가 주전 9세기 모압, 압몬 족속과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로는 첫째, 교만하였고 둘째, 형제의 불행을 즐겼기 때문이라고 오바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비판하며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 약탈당하고 모독당할 때 기뻐하였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편협하고 잔인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바다는 에돔을 향해 “너와 조약을 맺고 화목하던 자들이 함정을 팔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주전 53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하고 이후 신약시대까지 이두매 족속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간 묵상/새벽 예배 성경읽기	
요일	오늘 읽을 말씀
주일	왕상 22:15-28 보는 것의 중요성
월	왕상 22:29-40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무리
화	왕상 22:41-53 대조되는 통치기록
수	오바다 1:1-9 에돔의 교만과 멸망
목	오바다 1:10-21 심판 날의 대역전
금	욥 1:1-12 욥의 경건과 복
토	욥 1:13-22 상실의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

10월의 말씀 암송
<p>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p> <p>잠언 3:1</p> <p>My son, do not forget my teaching, but keep my commands in your heart,</p>



목회 서신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일정은 월요일 오후 4시부터 목요일 12시까지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준비된 강의들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목회와 제자훈련의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략하게 나누려 합니다.

첫째, 예수 복음의 DNA를 이식하라. 최근 신장 이식을 마친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시며 건강한 신장이 자신의 몸에서 들어와 작동하기까지 자신이 한 일은 신장 수술을 위한 동의서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수술을 받겠다는 것만 했을 뿐 나머지는 의료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복음 DNA를 내 안에 이식하기로 결정하고 받아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고백이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복음)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이후 성령님과의 교제를 가지면 생명과 존재의 변화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목회현장의 실제 체험들을 들으며 도전 받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과 자격이 있다.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과 입국자격증을 증명하는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보딩패스 없이는 탑승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착해서는 입국심사를 받는데 그때 말 그대로 입국이 가능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심사받습니다. 보딩패스가 없고 입국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진짜인지를 결국에는 심사를 받습니다. 공항 터미널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딩패스가 있는 사람만이 비행기에 탑승이 가능하듯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만 하나님 나라의 입국이 가능하다는 너무도 당연하지 않고 지내는 진실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를 위한 오늘의 기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도다 (시편 3:4)

1.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 복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3.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알리게 하옵소서. 불가리아 선교(부도보교회)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4. 사랑하는 고국과 현재 사는 영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의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주옵소서.
5.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항상 영혼, 몸, 일과 학업에 있어 건강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6. 자녀들이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7.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개인의 성공을 넘어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